

<여론조사 30%, 배심원제 30%, 시민참여 40%>

광주 '박원순 방식', 전남 '배심원단 경선+여론조사'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률 촉각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출범과 함께 경선률과 일정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경선 모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중심축으로 배심원제, 선거인단, 당원 경선 등 4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당원이 없다는 점에서 배심원제를 주축으로 여론조사를 가미하는 등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장 경선률**=우선, 광주시장 경선률과 관련해서는 배심원제와 여론조사 방식을 조합한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당의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된 배심원단이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본 이후, 현장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당원들의 참여가 배제되는데다 흥행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00% 여론조사는 민주당 측이 실질적인 인지도 조사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당원 경선 방식은 새정치연합이 당원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경선률'이 도입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 30%, 배심원제 30%, 시민참여 40%'가 복합된 안이지만 서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경선률
흥행성 높아 강점
도입될 가능성 가장 커**

로가 한 발짝 물러나는 방식인데다 흥행성도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당원 제외가, 새정치 연합측에서는 동원 경선 부분이 걸리지만 서로가 양보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흥행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사 경선률**=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지역이 넓은데다 당원 참여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전남지사 후보

■전남지사

**3개 권역 배심원단 경선
여론조사 방식 조합
가장 유력하게 거론**

경선이 전체적인 상황이 비슷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전남지사 후보 경선 안으로 3개 권역에서 각각 배심원단 경선을 치르고 여론조사 방식을 조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차례나 경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흥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3개 지역에서 배심원단 경선을 치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100% 여론조사 경선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들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중앙당이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인단을 구성, 현장에서 투표하는 선거인단 경선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인단의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시장 경선과 전남지사 경선률 선정과 경선 일정은 가장 뒤로 치질 가능성이 크다.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데다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5월 초에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무상교통'

철저히 준비해야 굴러간다



전남 신안군

버스공영제 단계적 추진

이용객 3배 늘고 상권 살아나



충남 서천군

요금 100원 희망택시 운영

마을버스 예산 60% 절감

전남지사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무상교통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과 충남 서천군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부 지방선거 후보들이 전화를 걸어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때때로 특수도 맞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교통복지 성공요인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한 뒤 충분히 예산을 마련해 추진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철저한 준비로 성공 거둔 신안군**=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해 버스 노선을 32개에서 44개로 늘리고, 버스 대수를 22대에서 38대로 늘렸다. 2007년 임자면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역을 늘리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른 시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신안군은 연구유역을 통해 영업보상, 실적보상, 차량인수비 등을 산정한 뒤 86억원의 예산을 들여 14개 업체로부터 군내 버스 38대를 사들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연인원 68만5000명이 이 버스를 이용했고, 이중 77.4%인 53만명이 무상으로 탑승해 무상버스에 거의 접근한 상황이다.

무상 운행에 따라 이용객도 급증하고 있다. 공영제 전인 2006년 한 해 버스 이용객은 20만명에 불과했지만 무상 운행 후 이용객은 3배가 넘는 68만5000명에 달했다. 14개 읍·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주변 상가가 활성화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버스 구입 과정에 기사들의 고용 승계로 불만을 줄였고, 무상 버스 운행에 따라 승객이 줄어든 택시업계를 위해 감차(110대 중 13대)와 택시쿠폰제(연간 예산 2억2000만

원)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을 손 본 점도 성공 요인 중 하나였다.

◇**무상 택시, 예산 절감 효과도**=충남 서천군의 '요금 100원 희망택시'는 일종의 카풀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들은 마을마다 전담 택시 기사를 직접 선정하고, 탑승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해 마을회관 앞에 모여 탄다.


이용 요금은 5km 거리인 면 소재지까지 4명을 합쳐 100원, 11km 거리인 군청 소재지까지는 버스 요금과 동일한 1인당 1100원이다. 나머지 요금은 모두 서천군이 부담한다.

서천군이 희망 택시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7800만원으로 비수익 노선버스를 운행할 때보다 오히려 3배 가까운 예산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 서천군은 과거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한 해 1억9600만원의 예산을 썼지만 희망 택시 도입 후 60%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성공의 배경에도 철저한 준비가 한 몫 했다. 서천군은 희망 택시 도입 전,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이동패턴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마을별 주민 이동패턴표를 만들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택시 운행계획을 짰 것이다.


또 3개면 3개 마을을 우선 선정해 시범 운행 한 뒤 주 2~4회 장날 위주로 택시를 운행하고,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마을회관~읍·면 소재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행 경로를 짰다. 철저한 조사 덕분에 희망 택시는 콜택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1회 탑승객 평균은 2.73명에 달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나홀로 탑승'을 줄여 예산을 최소화한 것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강운태 vs 이용섭 '경선률' 4년만에 뒤편 입장

강운태
"완전개방형 시민경선"
▶방법 : 유권자들 선거인단 공모 투표인단·투표방법 정해 선거인단이 후보 선출
▶단점 : 동원선거·조직선거 우려



이용섭
"100% 주민 여론조사"
▶방법 : 복수의 여론조사기관 선정 유권자 무작위 추출 여론조사사로 후보 선출
▶단점 : 인지도 평가로 전략 우려

4년 전엔~

"여론조사로 결정" "배심원제 도입을"

강운태 시장·이용섭 의원 '경선률' 신경전

"완전개방형 시민경선" "100% 주민 여론조사" 주장... 4년 전과 정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로 꼽히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경선률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강 시장은 완전개방형 시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이 의원은 100% 주민여론조사를 각각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개방형 시민경선제와 100% 주민여론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경선제도이지만, 들여다보면 후보 간 유·불리가 달라 질수 있다.

완전개방형 시민경선제는 유권자 누구나 투표인단(선거인단)에 응모

(참여)한 뒤 투표인단과 투표방법을 정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이 되고자 하는 유권자는 응모해야 하고 투표방법은 선거인단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완전개방형 시민경선제는 선거인

단 구성을 전제로 한다.

반면, 이용섭 의원이 주장하는 100% 주민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만 19세 이상 유권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이 100% 주민여론조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개방형 시민

경선제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동원선거·조직선거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그러나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100% 주민여론조사 방식은 인지도 평가라는 일반적인 지적이 있다"고 주장한 점을 비춰 볼 때 100% 여론조사도 단점은 있다.

한편, 4년 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맞붙었던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현재와 다른 경선률을 주장했었다. 당시 당선(黨心)을 얻지 못했던 강 시장은 여론조사에 중점을 뒀어야 한다고 했고, 이용섭 의원은 일부 시민이 참여해 후보들을 평가하는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지방정가의 한 관계자는 "모든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률이 도입되길 바라면서 명분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은 곧 당선인 점을 감안하면 경선률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www.festival.goheung.go.kr



2014

고흥우주항공축제

고흥으로 떠나는 신나는 우주여행!

GOHEUNG SPACE-AIR FESTIVAL

2014. 4. 10(목)~13(일)

고흥군 박지성공설운동장 일원

응답하라
나로호



고흥우주항공축제



고흥군
GOHEUNG COUNTY